전주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공공구매 등 협력사업 추진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성료
국민연금공단·신협 등 업무협약
조지훈 시장 "함께 상생의 길 모색"



전주시는 '제12회 2026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의체 등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전주시 조지훈 시장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제12회 2026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내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홍보·판매·체험부스와 유관기관 홍보관 등 모두 45개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전시와 판매를 넘어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의체 등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포럼과 기업 IR 발표대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과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폭도 넓혔다.

조지훈 시장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보고,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연결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사회공헌 활동까지 연계하는 협력 모델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훈 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공구매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참여와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주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전주(전북)=김근호 기자
kmo245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정영두 김해시장 낙동강협의회 차기 회장 선출



김해시 정영두 시장(사진)이 낙동강 유역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낙동강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김해시가 밝혔다.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정 시장은 최근 열린 하반기 정기회에서 참석한 7개 지자체 단체장의 만장일치 추대를 수락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해시는 회장 도시를 맡아 지자체 간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생태 분야의 공동 협력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경남웰컴센터' 오픈

경남도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수도권 주민의 경남 이주와 정착을 돕는 '경남웰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귀농뿐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양한 이주 수요에 맞춰 상담한다. 시군·전문기관과 연계해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고, 경남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는 주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 종합 상담은 10~11월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시범 운영한다.

도는 앞으로 18개 시군의 이주 지원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략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팔 걷어

지페어 코리아서 전략 포럼 개최
기업·기관 협력… 정부 공모 대응

경기도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6' 현장에서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AI 대전환, 경기와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지원단 공공부문 단장인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김태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김선우 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기업인,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글로벌 AI 허브가 정책연구를 넘어 산업 현장과 도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 전시회 현장에 포럼을 마련했다.

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지원단 논의에 반영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정부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기념관' 개관

미래세대 위한 교육 공간 활용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기념공원에서 열린 'APEC 기념공원 명칭 변경 현판 제막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을 맞아 지난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을 'APEC기념공원'으로 개칭하고 'APEC 정상회의 기념관'을 개관했다.

'경주 APEC,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가치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티무르 클라르제이 슈빌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문을 연 기념관에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과 개최 성과를 담은 자료를 비롯해 실제 정상회의장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장을 재현한 공간, 회고 사진전, 미디어 콘텐츠 등이 마련됐다. 도는 기념관을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상회의가 남긴 역사적 유산과 국제적 위상을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경주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목포시,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 준공

강성휘 시장 "수산식품 산업 육성"

목포시는 지난달 30일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과 수산업 유관기관, 수산식품 관련 기업·협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는 총사업비 약 1179억 원을 투입해 부지 2만 8,133㎡, 연면적 4만 6612㎡ 규모로 조성됐다. 임대형 가공공장 36개실을 비롯해 마른김거래소,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출지원 시설 등을 갖춰 수산식품의 가공부터 연구개발, 물류·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시는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과 제품 고부가가치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연계해 지역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은 목포 수산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목포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울진군
전 군민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울진군이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며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군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울진군은 지난 26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관내 위탁 병·의원 12개소와 보건기관 26개소 등 총 38개소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전 군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인플루엔자 발생 없는 청정한 울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구미영스퀘어, 누적 이용객 2만명 '눈앞'

구미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청년 복합문화공간 '구미영스퀘어(Gumi Young Square)'가 개소 1주년을 앞두고 누적 이용객 2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구미역 상업동 1~2층에 문을 연 구미영스퀘어가 오는 7일 개소 1주년을 맞는다고 밝혔다. 이곳은 청년라운지와 공유오피스, 웨딩테마라운지, 팝업 전시공간 등을 갖춘 청년 활동 거점이다.

개소 이후 석 달여 만에 누적 이용객 4000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총 1만 9626명이 이용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과 문화예술인, 대학 등과 협력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 활동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차역의 빈 공간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미영스퀘어의 지난 1년은 의미가 크다"며 "구미역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활력이 원도심 곳곳으로 확산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구미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힐링승마 프로그램' 6회 운영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난 30일 장애인과 봉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의 '부울경 공감여행'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말 먹이주기와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총 6회 운영했으며, 모두 120명이 참여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앞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